

# Digital Imaging의 선진사례 및 전망

정경모 · 박홍전 · 정 환\*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 · · · · 환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진료의 수준 및 범위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위한 모든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환자중심의 진료형태로서 “연속형 의료 서비스” 개념이 198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여 이러한 연속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병원조직내에 도입하는 통합의료전달시스템(Integrated Delivery System)의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 통합의료전달 시스템의 일환으로, 의용 방사선분야에서는 의료영상은 다양화 되고, Data량이 방대하여지므로서 이의 보관, 관리가 복잡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한편으로, 전자공학의 급속한 발달과 장래기술 발전을 생각해 볼 때 고차원적인 기능을 가진 화상관리 시스템, PACS를 착안, 그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은 자극히 자연 발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PACS는 故 入江教授 (홋카이도 대학병원 방사선과)가 개발하여 세계최초의 본격적 의용화상 OnLine Network로서 홋카이도 대학병원에서 제일먼저 채용하여 실용화 시킨 것이다.

하나의 영상을 동시에 여러개의 화상단말에서 검색, 분석, 참조 가능한 것으로 Filmless 이기 때문에 화상보관으로 인한 공간을 줄일 수 있고 화상 대출관리 업무에 소용되는 인력을 Patient Care에 활용할 수 있으므

로서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환자진료의 고도화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이념에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홋카이도 대학병원에서의 PACS 개발 경위 및 세계 유수 병원에서의 PACS이용 실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다.

